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방향 -

조대현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chodh@posri.re.kr)

목차

1. 신남방정책이란?
2.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
3. 향후 과제와 대응 방향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미·중·일·러) 수준의 정치·외교·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17.7월 발표)의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3대 실천과제(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포함
 - 추진 전략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에 기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하에 3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로 구성
-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생번영 기치하에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짐**
 -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최근 3년간('16~'18) 3대 교역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
 - 아세안 국가별 니즈와 한국의 장점을 고려한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업 간 협업확대와 정책수립의 가교역할을 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가 출범하였고, 1,000억 원 규모의 아세안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지원체계가 강화됨
- **해결 과제는 1)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2)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의 개발임**
 -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2011년 15%, 22%에서 2018년에는 43%, 52%로 급등하였음. 역내 다변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개별 국가간 FTA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
 - 한국의 아세안 무역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며 현지의 개선요구가 큰 상황임. 반면 삼성베트남의 수출이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진출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
 - 중·일과 차별화된 한국의 협력모델은 ▶상생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점인 인더스트리 4.0 역량의 활용확대,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찾아야 함
- **향후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별로 단계별 세부 협력방안이 포함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아젠다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특히 세부 실행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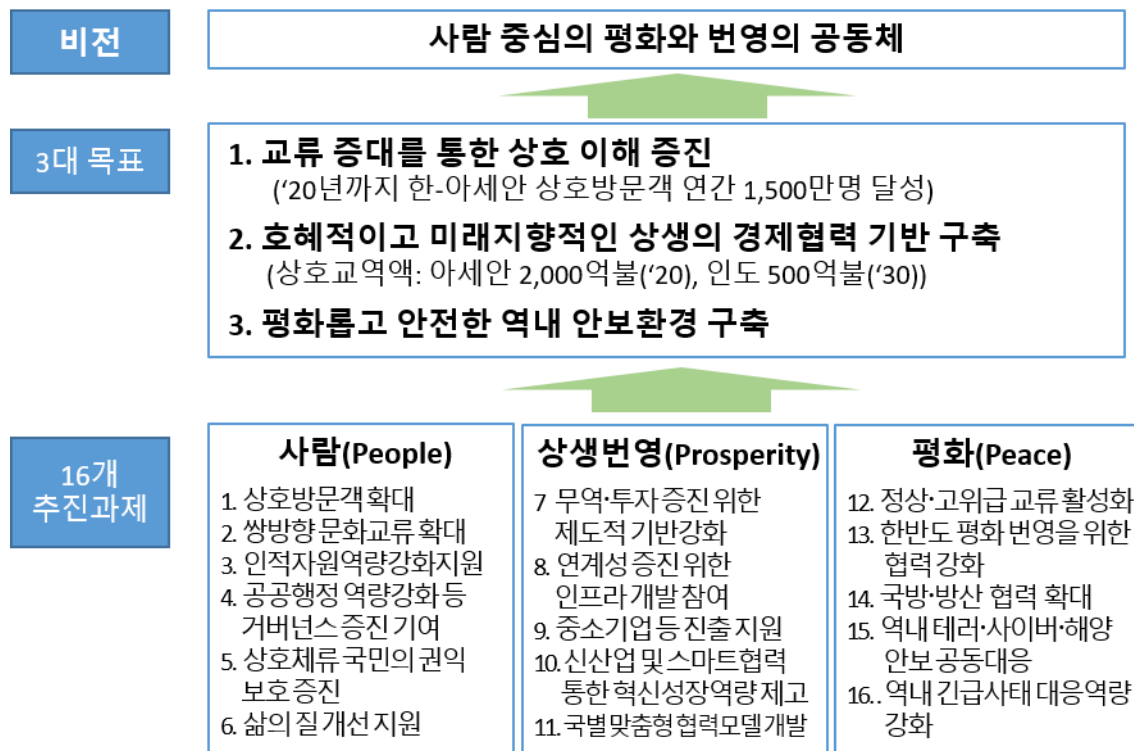
1. 신남방정책이란?

- 신남방정책은 대외여건 변화 대응과 협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미·중·일·러) 수준의 정치·외교·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정부 100대 국정과제('17. 7월 발표)의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3대 실천과제에 포함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실천과제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으로 구성
 - 추진 배경 1) 중국 내 사업여건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성장 잠재력 높은 아세안·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 증가
 - 인도와 아세안은 각각 인구 세계 2위와 3위, GDP(PPP 기준) 세계 3위와 4위 지역으로 향후에도 5~7%의 높은 경제성장 기대
 - 추진 배경 2) 아세안 국가들은 남북한과 동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조정자 역할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협력 다변화 지역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추진 전략('18.11월 발표)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에 기반하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하에 3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로 구성
 - 3대 목표는 '교류증대 통한 상호이해 증진', '호혜적·미래지향적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으로 구성
 - 교류증대의 세부 목표로 2020년 한-아세안 간 연간 상호 방문객 1,500만명 달성을 제시
 -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020년 아세안과의 상호 교역액 연간 2,000억 달러, 인도와는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 달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
 - 3P 구현을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해 16개 추진과제 제시
 - 사람은 '문화교류 확대',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 '삶의 질 개선' 등 포함
 - 상생번영은 '무역·투자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 진출’, ‘혁신 성장역량 제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등으로 구성

- 평화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등임

〈그림 1〉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체계



2.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

- 상생번영 기치하에 추진 중인 경제협력은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 측면에서 전개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최근 3년간('16~'18) 3대 교역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에서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
 - 한국의 교역규모는 2016년 9,016억 달러에서 2018년 1조 1,401억 달러로 연평균 12.4% 증가함
 - 동기간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1,188억 달러에서 1,597억 달러로 연평균

15.9% 증가. 반면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2,114억 달러에서 2,686억 달러로 연평균 12.6% 증가하며 평균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미국과는 1,097억 달러에서 1,316억 달러로 9.5% 증가에 그치며 평균 증가율에 미달

○ **교역규모 확대로 전 세계 교역에서 아세안의 점유율은 2016년 13.2%에서 2018년 14.0%로 상승**

- 반면 동기간 중국 점유율은 23.4%에서 23.6%로 정체, 미국 점유율은 12.2%에서 11.5%로 하락함

〈표 1〉 한국의 주요국과의 교역규모 추이(억 달러, %)

	2016		2017		2018		교역 연평균 증가율(%) (’16~’18)
	교역규모 (억 달러)	점유율 (%)	교역규모 (억 달러)	점유율 (%)	교역규모 (억 달러)	점유율 (%)	
중국	2,114	23.4	2,400	22.8	2,686	23.6	12.7
아세안	1,188	13.2	1,491	14.2	1,597	14.0	15.9
미국	1,097	12.2	1,194	11.3	1,316	11.5	9.5
기타	5,801	51.2	5,438	51.7	4,617	50.9	12.1
합계	9,016	100	10,522	100	11,401	100	12.4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9.3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 아세안 국가별 니즈와 한국의 진출 상황 및 장점을 살려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인도네시아 협력분야)** 전력·물관리·공공주택·교통 등 인프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협력 강화와 자동차·정보통신 등 신규 투자로 협력 확대 추진

- 포스코-PTKS 간 열연공장 추가 건설 및 롯데케미컬의 석유화학플랜트 건설(30억 달러, '20년 착공)이 추진 중이며, 현대자동차는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건설을 계획 중
- 또한 2020년 양국 간 교역액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인니 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2019년 내 체결하기로 합의
- **(베트남 협력분야)** 교통·도시개발·전력·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와 소재·부품, 섬유·신발,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중점 추진
 - 발전프로젝트 및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협력 다각화
 - 베트남 소재·부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베트남 TASK(Technology Advice & Solution from Korea)센터'를 해외 최초로 설립, 한국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자문과 현지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
 - 2020년 아세안과의 교역액 목표인 2,000억 달러의 절반인 1,000억 달러를 베트남에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간 협력방안 마련 중
- **(말레이시아 협력분야)** 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 의료, ICT 등 첨단 미래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할랄시장 공동진출 모색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며,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첫 번째 협력사업 시범도시로 코타키나발루를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스마트 물관리 체제 도입 등 협력을 통해 성공사례화 추진
 - 한류 소비재 시장과 할랄시장(이슬람 율법에 의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공동진출 모색
- **(싱가포르 협력분야)** 미래에너지·바이오·의료·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공동진출을 중점 추진
 - 바이오·의료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제조 등에서 협력강화
 -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미래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모델 발굴 및 해외 공동진출 모색

- 필리핀과는 발전소·LNG터미널·공항·항만 등 인프라와 농업 분야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브루나이와는 도로·교량 등 인프라와 LNG 밸류체인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또한 캄보디아와는 교통·에너지 등 인프라와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필리핀과는 항만건설 등 인프라 협력강화를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함(2018)
- 세계 13위의 LNG 수출국인 브루나이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전 개발, 수송, 판매 등 밸류체인 전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 중

〈표 2〉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중점 협력분야
인도네시아	전력·물관리·공공주택·교통, 철강·석유화학·자동차·정보통신
베트남	교통·도시개발·전력·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섬유·자동차·전자·기계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의료·ICT, 할랄시장 공동진출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바이오·의료·AI·IoT, 스마트시티 공동진출
필리핀	발전소·LNG터미널·공항·항만, 농업

자료: 양국 간 정상회담 합의내용, 산업협력 MOU 등을 고려하여 정리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18.8)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차관과 청와대 비서실 통상비서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등 참여
 - 상설조직인 신남방정책추진단(외교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14개 정부부처 공무원 30명으로 구성)을 조직하고 3P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 중

- 진출 기업 간 협업 확대와 국가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공공지원 기관 등 21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출범('19.1)
 -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건설, 전자, 기계, 유통, 프랜차이즈 등 제조 및 서비스 분야 협회가 참여,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체계적인 통합 지원시스템 운영
 - 또한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아세안 데스크'를 신설하여 현지 정보, 현지기업 연결, 투자진출 상담, 법률·세무·노무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 중
- 개발협력기금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인프라 수주 확대를 추진 중
 -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연간 7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연간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
 - 2017년 결정한 4대 중점 협력분야(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정보통신)를 구체화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시티 협력, ▶국가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수자원 등 스마트 인프라, ▶인프라 협력 지원을 위한 국토·토지·주택·도시 및 국토 정보 관련 정책 협력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
 - 또한 아세안 각 국가와 2개씩, 총 20개의 중점협력 사업(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말련), 양곤 도시고속도로 개발(미얀마), 8번국도 개량 협력(라오스) 등)을 선정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

3. 향후 과제와 대응 방향

-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1)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2)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에 대응,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함

1) 베트남에 집중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

- 2018년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은 43%, 52%로 2011년의 15%, 22% 대비 점유율이 급증하였음
 - 베트남과의 교역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베트남보다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는 시기에 따라 정체 혹은

감소 추세도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후발 아세안 국가와는 낮은 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베트남보다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양국 간 FTA 체결로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여건 마련 필요

-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와 함께 개별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교역투자 여건 개선이 필요함
- 우선, 수년간 정체상태에 있다가 올해 다시 논의가 시작된 한-인도네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의 연내 신속한 타결이 시급함

〈표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과의 교역 및 투자 추이(억 달러)

	베트남		인니		싱가포르		말련		태국	
	교역	투자	교역	투자	교역	투자	교역	투자	교역	투자
2011	185 (15%)	10.6 (22%)	308 (25%)	13.0 (26%)	298 (24%)	10.5 (21%)	167 (13%)	0.2 (3%)	139 (11%)	0.6 (12%)
2015	376 (38%)	16.1 (37%)	167 (14%)	7.0 (16%)	230 (19%)	14.6 (33%)	163 (14%)	0.1 (1%)	112 (9%)	0.1 (2%)
2018	683 (43%)	31.6 (52%)	200 (13%)	5.0 (8%)	198 (12%)	15.7 (26%)	192 (12%)	0.1 (2%)	141 (9%)	0.1 (2%)

*()안은 아세안 전체에서의 비중

자료: 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 교역은 한국무역협회, 2019.3

2)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에 대응

○ 최근 3년간 한-아세안 교역에서 한국 무역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무역적자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2018년 한국의 아세안 무역흑자 규모는 405억 달러이며, 이중 베트남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290억 달러로 72%를 점유

- 자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부터는 유연탄, 천연가스 등을 수입해 와 한국의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반면 기타 국가에는 산업구조상 중간재, 부품, 소비재 등을 수출하여 무역흑자 상황
- 한-아세안 간 제조업 가치사슬 구조상 무역적자 완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과 농수산물의 수입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의 국민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 대응 필요 (삼성베트남의 수출 규모는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보다 큼)
- 베트남 등 아세안은 제조업의 조립·가공기지로 산업구조상 중간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한국의 인위적인 무역적자 감소는 한계가 있음
- 삼성베트남의 2018년 매출액은 657억 달러로 베트남의 GDP 2,800억 달러의 23%에 달함. 또한 수출도 60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 2,447억 달러의 25%를 차지하였고, 근무 인력도 10만 여명에 달함

〈표 4〉 한국의 주요국과의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련	인니	아세안 10개국
2016	201	41	57	19	0.3	△17	302
2017	316	69	27	23	△7	△12	414
2018	290	85	38	29	△12	△23	40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9.3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 개발

- 중국과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 세일즈 외교와 자금력에 기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프라 연계와 정책소통, 무역연계, 자금유통, 민심상통 등 5개 분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세안 FDI 규모도 2016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 증가 중

- 중국은 2013년 안보와 경제협력을 2대 축으로 하는 ‘중-아세안 2+7

협력틀'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는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30 비전'을 통해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공동체 협력을 포함하는 '3+X 협력틀'로 업그레이드함

* 2+7 협력틀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은 안보와 경제협력을 2대 축으로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중-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인프라, 지역금융, 해양, 안보, 문화교류 등 7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 일본의 아세안 ODA 규모('16)는 한국의 9배 수준인 35억 달러이며, FDI 역시 중국의 빠른 추격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2013년 평화·번영·삶의 질·마음을 원칙으로 하는 '아세안-일본 우호 및 협력을 위한 비전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016년에는 2012년에 만든 무역투자 촉진, 물류 개선,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춘 '일-아세안 10개년 전략적 경제협력로드맵'을 개정하고 대표사업과 세부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추진 중임

〈표 5〉 한중일의 아세안 FDI 추이(억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43.1	52.8	54.2	65.4	50.6
중국	63.3	62.5	66.2	112.8	113.7
일본	247.4	130.1	133.1	137.7	134.1

자료: ASEAN Secretariat, 2019

- 대규모 차관이나 ODA 자금을 앞세운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차별화된 협력모델은 ▶상생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점인 인더스트리 4.0 역량을 활용한 협력강화,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찾아야 함
- 상생협력을 위해 인력교류, 기술·지식·노하우 전수로 현지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에 현지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
- 특히 인더스트리 4.0 역량을 활용한 철강·자동차·전자·화학 등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5G·미래자동차·바이오·의료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추진
- 한류를 활용한 K-Food, K-Beauty 등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

4. 시사점

- 신남방정책은 미국, 중국 등 4강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세안과 인도로 협력공간을 확대하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임
 -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3대 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에서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국별 중점 협력분야가 선정되었고, 정부-기관-기업을 연계하는 국내 지원체계가 강화되었음
 - 반면 베트남에 치우친 투자·교역과 무역적자의 해결방안 마련과 함께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더스트리 4.0 역량을 활용한 협력 강화, 한류의 경제화 등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함
-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협력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시급함
 - 국가별로 단계별 세부 협력방안이 포함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아젠다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특히 기업이 경제협력을 주도해온 한국에서는 실행방안 마련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2019년 11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성과와 중장기 로드맵 등 신남방정책 전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할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서적]

“2019 신남방정책: 아세안 인도를 다시 본다”, 친디아플러스, Vol.133. 2019

[홈페이지]

ASEANStatsDataPortal, FDI 통계 (<https://data.aseanstats.org/fdi-by-hosts-and-sources>)

KOTRA 경제외교 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http://nsp.go.kr/main.do>)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AseanMain.scree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언론]

“김정은 방문설...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은 어떤 곳?”, 조선일보, 2019년 2월 17일자

“베트남 기업우대에... 삼성전자, GDP 28% 기여”, 파이낸셜 뉴스,, 2019년 3월 13일자